

적극적인 교육으로 미래를 여는

서산·태안지부

- 취재 : 조진현 -

고즈넉한 가을, 사람들을 찾게 되는 그런 계절이다. 스쳐갔던 사람들을 하나둘 기억에 떠올려 정리해 봄 직도 하다. 이번에는 한껏 삶의 여유로움을 가지고 아등바등 이익만을 찾아 다니는 현실을 외면한 채 한 배를 탄 동료라는 생각을 우선으로 지부장을 중심으로 인간적인 친분관계가 돋보이는 서산·태안지부를 이번 지부탐방의 목적지로 잡았다.

시끌벅적한 사람들과 빌딩담속에서 도시를 가득채운 자동차들을 벗어나 서울을 출발해서 경부선을 따라 천안으로 내려가서는 두세시간을 길옆 가득한 플라타너스 나무를 가르며 아산, 예산을

지나 가을 경치에 취하다보면 저 멀리 서해바다가 보이는 운치있는 서산시가 나온다. 그리고 그 너머 서산시를 멀리 둘러싸고 바닷가를 마주하고 있는 것이 태안군이다.

협회의 대규모 지부인 홍성지부와 근거리에 있는 서산·태안지부는 중앙회 회원수 32명의 규모가 적지않은 지부이며, 도시의 대규모화 속에서도 아직까지는 양돈업이 2차, 3차 산업에 위축되지 않고, 3개정도의 자그마한 양돈인 친목회가 있을 뿐 협회를 중심으로 양돈인들이 힘을 모으고 있는 그런 지역이다.

월례회를 통한 선진양돈 지향

지부는 1988년 1월에 설립되어 초대 문승현, 최윤원, 이태무, 이종구 지부장에 이어 현 박광욱 지부장이 지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임원으로는 고문 1명, 부지부장 2명, 총무 1명, 감사 2명, 운영위원 6명을 두고 있다.

충남은 경남지역과 함께 전국에서 양돈업이 가장 성행하는 지역중의 하나로써 지부지역인 서산에서도 약 6만두 정도, 태안에서도 약 1만5천두 정도 사육하고 있어 도합 약 7만5천두 정도가 지부지역에서



〈사진1〉 우로부터 이종구감사, 이소심씨, 박광욱 지부장, 송용호 총무, 김선재 부지부장, 이순로 운영위원

사육되고 있는 썸이다. 가구수로는 약 3~400가구가 양돈업을 하고 있는데, 그중 지부의 회원들은 평균 700두 규모 이상의 전업화된 농장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서산·태안지부는 다른 여타 지부와 마찬가지로 월례회를 매월 개최한다.

하지만 회원들만의 협소한 명목상의 월례회를 지양하고 짝수달과 홀수달로 나눠서 홀수달은 운영위원들과 회원들만의 지부 운영사

행이나, 내부회의를 실시하고, 짝수달은 교육사업에 역점을 두고 월례회를 경비를 들여 세미나 형식으로 각 관계자들을 초빙하여 새로운 양돈기술과 기자재, 질병정보 등을 설명받고 이야기하며, 서로 권장하기도 하는 등 지역 양돈업을 현대화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회원농가들의 경우 거의 모두가 현대화 시설을 갖추었다고 한다.

또한, 부부동반 참석을 의무화하여 가족노동력의 의존도가 점차 높아지는 현 추세에 맞게 세미나의 효과를 배가하고 있으며, 회원뿐만 아니라 비회원인 지역 양돈인들도 스스럼없이 참석하여 회원과 비회원의 선을 넘어 같은 양돈인들로서 정보를 교환하고 친목을 다지고 있었다.

전임 지부장은 소화기를 공동구매 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회원농가 양돈장마다 소화기를 하나씩 비치하였으며, 개인적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양돈인들의 양돈시설 설치시 시설지원을 해 주고 있으며, 지부사무실은 지역 양돈인들의 만남의 장소로 사용될 정도로 많은 양돈가들이 계



〈사진2〉 교육사업에 역점을 둔 짝수달의 월례회 겸 세미나

속해서 드나들고 있어, 부담감없이 지역 양돈인들이 지부장을 중심으로 뿔뿔 뭉쳐있었다.

지부는 매년 6월과 12월 농한기에 친목회를 가지며, 작년 12월에는 협회가 나서서 불우이웃 돕기를 실시한 바 있다. 또한, 내년에 지부설립 10주년을 맞이하여 규모있는 행사를 개최하여 지역에서의 양돈인의 위상을 높이는 한편, 소비·홍보를 위한 활동까지 함께 할 예정이라고 한다.

사료 및 기자재 공동구매로 지부발전을 꾀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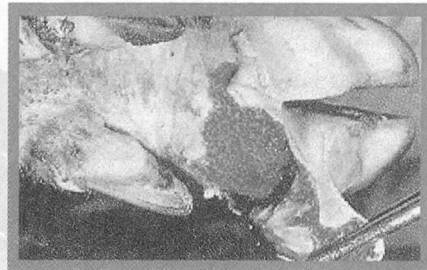
지부는 이제까지와는 달리 현 박광옥 지부장의 추진성있는 일처리에 힘입어, 지부운영을 위해 양돈가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하여 올해부터 주요사업으로 사료공동구매사업과 기자재 판매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방역사업을 시당국에서 위촉받아 협회를 통해서 모든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작년까지의 지부운영의 어려움을 벗어나 박광옥 현 지부장은 사료업체와, 기자재업체와의 교섭을 통해서 싼가격에 사료와 기자재를 구입해 회원들에게 저렴하게 판매하고 수수료를 받아 지부발전의 밑거름으로 삼고 있었다. 현재 사료구매량은 월 500~600톤에 달하고, 그에 따른 수익은 1~2백만원선에 달한다고 하며, 이제부터는 현재의 사료(기자재)구매사업을 더욱 체계화하고 유지해 나가 이를 바탕으로 내년부터는 돈육소비·홍보 활동의 적극추진과 함께, 인공수정사업, 지역 양돈인들이 모두 참석하는 야유회겸 단합회 등을 계획중에 있으며, 특히 지금 지부내에서는 서울도매시장, 중간상인, 육공업체 등 양돈인들이 돼지를 출하하는 방향이 제각각이며, 출하에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말하고 빠른 시일안에 육가공업체와의 교류를 더 회원농가들에게 유통·가공에 편의를 줄 수 있게 공동출하

사업을 협회가 주관이 되어 성사시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덧붙혀 이런 사업들이 이루어짐으로써 협회의 회원은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될 것이며 지부의 발전은 더욱 가속화 될 것이라고 지부장은 장담한다.

그리고 현재에 바라는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것이냐의 필자의 질문에 지부장은 서슴치 않고, “축산분뇨 공동처리장이 정부 차원에서 꼭 설치·운영되어야 할 것이며, 협회의 발전을 위해 자조금 제도가 빨리 시행되기를 바란다”고 이야기했다. 그리고 전임 지부장이었던 이종구감사는 “5년전만해도 이렇게 질병이 많지 않았다. 밀수를 근절하고 검역을 철저히하여 외부에서 질병이 들어오는 것을 완벽하게 막아야 할 것이다. 해안경비대나, 검역소도 열심히 하고 있겠지만, 우리 양돈인에게 생업이 달린 문제이다.”라고 강조한다. **養豚**

본지캠페인



**“대만 돼지 구제역 발생
‘강 건너 불’이 아닙니다”**